

흑룡강

보상교환판매 범위 확대로 소비 업그레이드 추진



앞에 드는 가전제품을 둘러보는 소비자들

/ 신화넷

흑룡강성이 보상교환판매(以旧换新) 정책 범위를 확대하며 소비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흑룡강성상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흑룡강성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행동 추진 방안〉이 발표된 후 지난해 말까지 흑룡강성은 자동차 폐차 및 업데이트 신청 14만 5,000대를 접수했으며 가전제품 32만 5,000대, 인테리어·주방·육식 제품 4만 8,000개를 판매했다.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보조금은 24억원 이상이 사용됐으며 자동차·가전·인테리어 등 분야에서 200억원 이상의 소비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흑룡강성 2025년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확대 실시방안〉이 정식 시행됐다. 방안은 자동차, 가전제품, 인테리어, 디지털, 가정용 광대역 등 12

개 분야를 포괄하며 ‘육색 지능형’과 ‘보편적 민생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지능화·친환경 제품들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고품질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할빈 서만달소지역구 매장, ‘국가 보조금 보상교환판매 최대 20%’, ‘단품 최대 보조금 2,000원’ 등 홍보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매장 직원은 소비자가 현지 소비재 보상교환판매 플랫폼홀에 등록해 자격을 얻고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시행된 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내구성이 좋은 고품질 소비재가 정책 범위에 포함되면서 소비자 수요 충족과 가격 혜택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흑룡강성상무

청 장국리 부청장은 “보상교환판매 정책은 점차 흑룡강성 경제 발전의 ‘부스터’(助推器), 소비 활력을 방출하는 ‘조연제’(助燃剂)로 발전하고 있다.”



흑룡강성 할빈 소냉역구 매장에 걸린 보상교환판매 홍보 문구

/ 신화넷

우리 나라 주도 제정 양로 로봇 국제표준 발표



지난해 11월 9일,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EE)’에서 가정용 동반자 로봇을 체험하는 관람객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최근 중국이 주도하여 제정한 양로 로봇 국제표준을 정식 발표했다. 해당 표준은 로인들의 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근거하여 각종 양로 로봇의 제품 설계, 제조, 시험 및 인증 등에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양로 로봇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2월 2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해당 표준은 로인들에게 필요한 보조 지원 수준을 기반으로 양로 로봇의 기능과 성능 기준을 제시했는데 가용성, 신뢰성, 배리어 프리(无障碍), 에너지 소비, 소음 등 일반적인 요구사항외에도 양로 로봇가 제공하는 건강 상태

및 긴급 상황 모니터링 서비스, 가족 및 의료진과의 통신 지원, 다양한 가사·오락·거주 관리·케어 등 활동 지원, 외출 및 보행 등 이동성 지원,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성능 등에 대해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전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1억명, 그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4.26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로 로봇의 등장은 로인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보살핌 부담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로인들의 존엄하고 독립적인 고품질 생활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화넷

귀주 봄차, 농가 소득 증대 효자 노릇 ‘톡톡’



2023년 2월 23일, 보안현 다원가두의 한 차산업협작사에서 차청을 말리고 있는 직원.

/ 신화넷

2월 22일 이른아침, 귀주성 검서남부이족묘족자치주 보안현 상운차(翔云茶) 공장 책임자 진창운은 전날 밤 가공한 15키로그램의 건차(干茶)를 들고 다원가두에 위치한 중국아침차(早茶) 거래센터로 향했다. 오전 9시경, 거래센터는 절강, 산둥 등지에서 온 차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그들은 매대를 오가며 차를 시음하고 가격을 흥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외지 상인이 진창운의 건차를 전부 구매했다. 이번 거래로 1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그는 “많은 차 상인들이 이곳에 모이기에 판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안현 부현장 류금은 “보안현은 해발고도가 높고 위도가 낮으며 일조량이 적고 안개가 많은 지리적·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토양의 부식질 함량이 높고 지열이 풍부해 차나무가 일찍 싹트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류금은 “이곳에서는 ‘봄차’(早春茶)를 일찍 수확하기에 음력설전후에 새 차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60~70명의 외지 차 상인들이 이곳을 찾아 차를 매입하고 있다.”면서 “차잎을 채취하는 당일 공장에 보내 가공하기에 이른날 아침이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오가 되면 상인들은 구매한 건

차를 당일 오후 절강성, 산둥성 등지로 보내기 위해 거래센터내 물류센터를 찾는다. “우리는 전용 차량으로 차잎을 귀양룡둥보공항까지 운송한 뒤 비행기로 목적지 공항에 보낸다.” 순풍익스프레스 직원 좌주군은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산둥으로 가는 운송 전용선을 새로 개통했다.”면서 “덕분에 이틀날이면 차잎이 절강성 전역과 산둥 일부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공장으로 돌아온 진창운은 가족들이 새로 수확한 차청(茶青)을 가져오자 다시 바빠 보내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차청을 수확하는 일을 맡고 나는 차를 묶고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 진창운은 올해 1,500키로그램 이상의 차청을 수매하고 400키로그램이 넘는 건차를 가공했는데 현재 전부 열자원이 풍부해 차나무가 일찍 싹트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류금은 “이곳에서는 ‘봄차’(早春茶)를 일찍 수확하기에 음력설전후에 새 차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60~70명의 외지 차 상인들이 이곳을 찾아 차를 매입하고 있다.”면서 “차잎을 채취하는 당일 공장에 보내 가공하기에 이른날 아침이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오가 되면 상인들은 구매한 건

/ 신화넷

년간 매출 800억원… 수제네일팁 동해현의 ‘황금산업’으로



강소성 려운항시 동해현 우산(牛山)가두에서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수제네일팁(手工穿戴甲)이 수십억원 규모의 ‘뉴티산업’을 이끌고 있다. 우산가두 창업자들은 불과 몇년 사이에 수제네일팁을 소득 증대를 보장하는 ‘황금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에 힘입어 동해현은 년간 약 1억 5,000만세트의 네일팁을 판매, 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제품은 전세계

35개 국가(지역)로 수출된다. 리현은 우산가두에서 가장 먼저 네일팁의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다. 그는 2018년 환경보호 안전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착용·제거할 수 있는 네일팁에 눈길을 돌렸다. “처음 네일팁을 접했을 때는 한세트 가격이 300원 정도로 일반 네일아트(美甲)보다 훨씬 비쌌다. 하지만 색젤(色胶)을 직접 손톱에 바를 필요 없이 단순히 젤리글루(果冻胶)를 사용해

몇분 안에 완성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 리현이 처음 접한 네일팁은 주로 기계로 제작되었으며 디자인이 단순하고 접착감이 부족했다. 여러 지역의 시장을 조사한 후 리현은 수제네일팁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어 디자인, 샘플 제작, 생산, 판매를 아우르는 일괄 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 우산가두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꽤 많다. ‘수제네일팁거리’로 불리는 이고로(颐高路)에는 50여개 매장이 줄지어 있다. 매장마다 다양한 디자인의 네일팁이 진열되어있고 앵거들은 카메라 앞에서 각양각색의 네일팁과 스타일링 팁을 소개하고 있다. 2018년을 시작으로 불과 수년 사이에 우산가두의 네일팁 경영주체는 2만개에 육박하고 종사자는 1만여명에 달하여 2만명 이상의 취업을 이끌었다. 2023년, 동해현은 전국 최초로 네일팁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주도적으로 산업 표준을 제정하여 산업 규범 발전을 추진했다. 2024년, 동해현은 수제네일팁산업 발전 3개년 계획 행동방안을 발표하여 프로젝트 유지, 산업

규모, 제품 품질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아바지했다. 동해현의 핵심 수경원(水晶城) 3호관에서는 수제네일팁산업 전면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곳에는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여러 기업이 입점해있다. 매장에는 가격이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에 이르는 수제네일팁이 악세사리마냥 정교하게 전시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건 특정 브랜드와 협업해 만든 콜라보 제품이다”, “이 제품은 실크 원단을 사용했다.” 한 매장의 주인은 네일팁이 기계가공을 통한 저가 경쟁의 길을 선택할 경우 가격경쟁에 휘말리기 쉽다면서 “크로스오버(跨界)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다양한 수공예 기술을 운용한다면 보다 많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서는 매니큐어·네일팁·디자인·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수제네일팁이 ‘뉴티경제’라는 새 코스에서 현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 신화넷

/ 신화넷

천진, 첨단 스마트공장 육성에 박차

천진시는 년내에 100개 이상의 선진급 스마트공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중 10개 이상이 우수급이다. 또한 10개의 5G 전련결공장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제조 장비, 공업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을 배치하여 생산설비와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추동하고 업무 모델과 기업 형태 혁신을 전개함으로써 제품 전반 생명주기, 생산제조 전반 과정과 공급사슬 전반 고리의 종합적 최적화와 효율·효익의 전면적 제고를 실현하는 신형 공장을 가리킨다. 근년래 천진시는 디지털화와 스마

트화를 통해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을 가속화해왔다. 현재까지 천진시는 400개의 스마트공장과 디지털작업장을 육성했으며 25개의 5G 전련결공장을 구축하고 66개의 고수준 제조업 디지털 전환 서비스업체를 키워냈다. 천진시공신국 국장 윤계휘는 다음

단계에 천진시는 스마트공장 건설, 중점 업체 ‘1업1책’(一业一策) 디지털 전환 지침 제정, 전환서비스업체 리소스 풀(资源池) 충실화 등 방식을 통해 기업, 산업, 지역의 스마트화 역량 강화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 신화넷